

“최적 입지”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

시민추진위 출범...유치 활동 본격화
미래 청정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선언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동시 실현 기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차세대 청정 핵융합에
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조직
이 본격 출범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도
시로 도약하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
태양 홍보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 유치 퍼포먼
스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의지
를 드러냈다.

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나주시는 지난 4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나주시제공〉

명예위원장을 맡고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
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으며, 언론
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60여명이 추진

위원으로 동참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는 태양
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
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이다.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에 맞먹는 에너
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
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적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기술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약 1조2
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50년까지 20
0여개 관련 기업 유치와 1만개 이상의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주가 ‘에너지
신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KENTECH)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
너지산업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돼 있으며, 안정
적인 부지와 풍부한 용수 공급망 등 최적의 입지
를 갖추고 있다”며 “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인
공태양 연구시설을 나주로 유치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나주시와 시민추진위원회는 향후 행정
력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주=정준환 기자

강진군 보은산 트레킹길 명소 각광

8억6천만원 투입...4개 구간 조성

몸·마음 회복 도심 녹색쉼터 주목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길(둘레길·
사진)이 전 구간 개통되며 자연을 즐기는 생태
관광 명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은산 트레킹길은 총 1
5.6km 구간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작천면, 성전
면을 잇는다.

단계적으로 조성된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
를 넘어 지역민과 방문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도
심 속 녹색 쉼터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억6천만원을
투입해 4개 구간에 걸쳐 트레킹길을 조성했다.

1차 구간은 강진을 동성리에서 군동면 파산
리를 잇는 3.2km, 2차 구간은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평기리로 이어지는 2.8km, 3차 구간은 작
천면 평기리와 성전면 명산리를 연결하는 약 2
km, 마지막 4차 구간은 성전면 명산리에서 강진
읍 남성리로 되돌아오는 약 2.3km 구간이다.

트레킹길 전 구간에는 목계단, 폐수로, 돌의
자, 이정표 등이 설치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
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완만한 경사와 친환경 노면 설계로 남녀
노소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으며, 사계절 변



화하는 숲의 경관은 걷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
과 휴식을 제공한다.

강진군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 구간 이정표
를 보강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의자 등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성전면과
작천면 방면에서 트레킹길로 접근할 수 있는 연
결 노선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이 가진 숲의 매력
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낸 길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건강
한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내달 21일까지 ‘해남청자 바다로 가다’ 기획전

군민광장내 광장갤러리서 전시

철화청자·청자완 등 80여점 전시

해남군이 고려시대 최대 청자 생산지였던 해
남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를 마
련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민광장 내 광장갤러
리에서 ‘해남청자 바다로 가다’ 기획전이 오는 1
2월2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추진되는 사진 전시로 고려시대 최대의 청자 생
산지인 해남의 화원, 산이 지역에서 생산된 ‘해
남청자’를 소개하고 있다.

고려 초기 화원면 신덕리와 산이면 진산리에

서 출토된 철화청자, 청자완, 접시, 장구 등 각종
유물과 도침·갑발 등 제작 도구, 군산 십이동파
도와 진도 명랑 해저에서 발굴된 해남청자 등 8
0여점이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해남청자가 고려시대 육지에서 바다를
거쳐 세상에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패널과 영
상으로 구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군은 전문 해설사를 배치해 해남청자의 역사
적 가치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려 초기 최대 청자 생산지
로서 해남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청자의 우수성
과 해상 진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호우 이재민 의료급여 접수

14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함평군은 5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
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
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
해 및 부상자 가구다.

재해 발생 당시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실
거주가 확인된 경우, 지난 7월17일부터 10월16일까
지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

완도군 ‘미래 수산업’

이끌 인재 양성 나선다

한국수산벤처대학 신입생 50명 모집

완도군이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
양성에 나선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12월19일까지 2026
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제20기 신입생 50명
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
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수
산 정책 실무와 경영·마케팅·창업 등 해양 수산
분야 전반을 다루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
로 운영된다.

또한 국내외 현장 학습과 시제품 제작 등 창
의적 벤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다.

수료생에게는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 이수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전략적 경영
능력, 리더십, 글로벌 수산업 동향 등을 심화 학
습할 수 있다.

특히 제18기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박창숙·김순희 교육생은 전북 패각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척고 방향제를 개발해 ‘전남 해양
수산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발굴 사업’과 ‘해양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 수산업 종사자 및

해 주수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
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
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군 물맞이골 숲 걷기·체험 행사 개최

8·9일 산림욕장·불무공원서

숲 해설·정원투어·체험부스 등

무안군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물맞이골 숲
걷기 및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레트로 가
을소풍’을 주제로 ‘위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
와 연계해 군민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산
림복지시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8·9일 양일간 물맞이골 산림욕장과

불무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방문객들은 숲속을
걸으며 자연을 즐기며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당초 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확산으
로 연기됐으며,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
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가
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선 8일 오전 10시 물맞이골 산림욕장 내 주
행 시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행
사가 진행되며, 다음날까지 음악회와 각종 체험

행사 등이 이어진다.

물맞이골 산림욕장에서는 숲 걷기 스탬프 투어,
숲 해설, 정원투어 등이 마련되고, 불무공원에서는
반려식물 만들기, 보물찾기, 숲속작은 책방, 페이스
페인팅, 달고나·뽕기 등 레트로 체험, 감람 만들기
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올해는 ‘무안 군화 국화전시’도 함께 열
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행사는 군민 걷기 문
화를 확산하고 무안의 산림휴양복지시설을 홍
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과 문
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을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 자은도 ‘굴참나무’ 품종보호권 획득

황금빛 잎사귀 특징...25년간 독점

신안군은 5일 “자은도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사진) 변이종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굴참나무를 2022년 6월 ‘신안 천사
(Shinan Cheonsa)’라는 이름으로 출원했으며,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최종 등
록됐다.

‘신안 천사’는 기존 굴참
나무와 달리 녹색 잎에 노
란색 무늬가 선명하게 나
타나는 변이종으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황금빛에 가까
운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
년간 집록을 통한 자체 증식 실험을 진행해 동
일한 형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품종 등록에 성공했
다. 이번 등록으로 25년간 독
점적인 품종보호권을 확보
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
대행은 “신안 천사 굴참나
무의 대량 증식을 통해 지
역 수목자원을 확보하고, 차
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
는 한편 지역 주민과 연계한 소득사
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